

생산량 40% 감소로 심각한 위기

# 전북 상용차산업 “돌파구 절실”

두세훈 도의원 “경쟁력 확보토록 친환경차 연구개발

생산·노동자들 고용안정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도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곧바로 정부 등에 송부 예정

전북도의회가 생산량 급감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전북 상용차산업의 돌파구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지난 22일 채택했다.

두세훈(원주 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내 상용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친환경차 연구개발 및 생산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정부 등에 촉구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의원은 “불과 5년 사이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25,562대가 감소했고, 수출은 53%나 줄었으며, 타타대우 상용차는 생산과 수출 모두 58%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40% 아래로 추락해 IMF 때보다도 못한 생산량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순환 휴가와 교육, 그룹사 전출 등의 구조



조정 위기에 내몰렸다.

타타대우상용차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코로나 19까지 덮치면서 공장 가동률은 절반 이하로 폭 떨어졌고, 이미

150여 명의 직원이 직장을 떠나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의안은 정부가 친환경차 개발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수소 및 LNG상용차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건의안은 현대차에 지난 4년간 노사합의에 따라 픽업트럭 등 신차종을 전주공장에서도 생산할 것과 전북도에 위기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두세훈 의원은 “전북 상용차산업은 전북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전북경제 회복을 위해 전북정차권과 재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북 상용차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산자부, 현대차 및 타타대우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뉴딜사업,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

울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5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전북도 체육회, 전북도 장애인체육회, 동화농민혁명기념재단의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시간을 가졌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문체국의 뉴딜사업 발굴 전략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모호한 개념과 전략으로 뉴딜사업을 말할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연급하며, 스포츠 인권은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접수에서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문체국이 디지털뉴딜, 정부 뉴딜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의 비전과 목표 슬로건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며 “혁신에 대한 의지가 내용이 부족하고 인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문화도시가 전북도 전체의 지역발전 전략으로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전북도에서 적극적인 도비 분담을 통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다른 시·군에게도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원수 의원(임실)은 “지역 축제와 관련해 시·군이나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업무보고 받는 문 대통령

경 질병관리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은

## “전북만의 특색있는 작물 품종으로 소득 향상 사업 추진을”

도의회 농산경위, 전북 농기원 울 상반기 업무보고서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5일 제378회 임시회 기간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농산경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도 농업기술원 2021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에 있어 정원 대비 1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며 “인사 부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충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등이

타 시·도의 것과 대응소이함”을 지적하고,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작물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도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성환 의원(전주7)은 “스마트농업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전북도 농업이 디지털 농업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디지털 농업 실용화 및 현장 보급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근 의원(김제2)은 “최근 도내 농업 분야에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 기후변화에도 기상재해 대응 조기경

보 서비스를 잘 활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고부가가치 농업 지향으로 시설재배가 많아지고 있어 재배 시기 변화 등 농업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병해충 피해 등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축산분뇨 활용 경축순환 농업 구축 및 확대 사업 추진에 있어, 퇴비 시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설정과 시비시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해 농민들에게 적정한 가족분 퇴비 재배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통학버스 임차비 선지급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

김희수 도의원, 교육위 회의서 제안

“도내 관광버스업계 지원 등 차원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 방안으로 통학버스 임차비를 선지급해 도내 관광버스업계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교육위원장) 의원은 25일 제378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관광업계다”면서 “교통 분담 차원에서 도내 통학버스 임차비를 선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부교육감 상대 정책질의를 통해 “도내 관광업계와 관광버스 업계는 아무런 일거리가 없는 상황으로 그나마 학교

통학버스 임차가 유일하다”면서 “현재 계약방식상 운행일수 기준 매달 정산해 임차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 선금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공립 192개 학교에서 216대, 공사립 특수학교 9개교에서 21대의 통학버스를 임차할 예정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임차비로 약 115억 8,000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경제극복 차원에서 계약금액의 약 18%를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급한 바 있다.

김희수 의원은 “선금지급 비율을 상향해서 지원하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 “도민 생명·안전이 우선”

도의회 환경위, 군산·남원의료원 직원 노고 배려 차원

울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서면 대체·추후 일정 논의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이어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6일로 예정됐던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해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위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까지 의료원 내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업무보고 중 코로나 감염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새로운 1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의 업무계획에 대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방침에서의 결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연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원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일정을 다시 정해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위는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를 가졌다. 이명연 의원(전주 5)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대한 보급대상을 묻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 및 여름철 공동주택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 1)은 “미세먼지 농도를 TV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전북도가 앞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 확대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축산악취,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 발생 원인의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대책 마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플라스틱 농약병 및 부직포 등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고 있는 농촌 현실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군산 1)은 소나무재선충병 사후 처리과정에서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적법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아울러, 간벌 후 방치되고 있는 잔목 등을 수거해 펄펄 재활용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사방댐 준설 사업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며, “사방댐이 관리되지 않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방댐 준설사업의 필요성 및 차후 국비 확보에도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